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센터

“100% 가동률 자랑하는 최상의 콘텐츠 제작소”

초고속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영화, 게임, 음악, e-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다양한 콘텐츠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컨버전스'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21세기는 콘텐츠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콘텐츠는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내에 자리잡은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센터는 이런 추세에 부응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 제작소로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하며 관련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첨단 편집장비를 보유, 장비 임대 및 기술지원으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체에 희망을 주고 있는 DC제작지원센터를 찾았다.

신선자 객원기자

“운전은 한다. 하지만 차는 모른다.” 한 자동차정비소의 광고 문구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에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콘텐츠제작소가 있다. 주인공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내에 자리잡은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센터. 소프트웨어진흥원 콘텐츠사업단에서 운영하는 DC제작지원센터는 총 271㎡(82평) 규모로 최첨단 편집 장비를 구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업체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 웹캐스팅지원센터로 처음 개소해 지난해말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센터로 공식명칭을 변경한 이 센터는 올해 들어 최첨단 편집장비 확충 등 본격적으로 지원영역 확대에 나섰다.

특히 이 센터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과 웹캐스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에 꼭 필요한 스튜디오 및 장비를 타 콘텐츠 제작소와는 달리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는 보통 역대가 넘어가는 고가다.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다. 또한 이러한 장비는 구입한다고 해도 그렇게 자주 쓰이는 장비가 아니라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애물단지다.

DC제작지원센터는 이러한 업체들의 고민을 덜어줄 좋은 동반자로서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아이디어도 있고, 장비도 다룰 줄 알지만 제작비 부담으로 인해 프로덕션 과정에 쉽사리 도전하지 못했던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석 선임은 “디지털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콘텐츠 제작업체들은 양질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국내 생산력은 매우 미흡하며,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DC제작지원센터는 이러한 업체에게 장비 임대 및 기술지원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발굴해 내는 데 일조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콘텐츠 제작소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 외에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지원종합센터 등 다양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운영하는 DC제작지원센터가 타 단체에서 운영하는 제작소와 차별화된 것은 고도의 테크니컬을 요하는 선진기술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만을 다룬다는 점이며, 별도의 전담 위탁운영업체를 두지 않고 우리가 직접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장비에만 60억원 이상 투자

소프트웨어진흥원 내 콘텐츠사업단에서 운영하는 DC제작지원센터에는 센터와 관계된 인력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센터 사용을 신청한 업체가 센터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기술지원과 유지보수까지 담당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의 DC제작지원센터가 주목받는 이유가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센터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리서치를 통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향후 투자방안을 마련하는가하면 장비사용에 있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유지보수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디지털 콘텐츠 발굴을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 기술교육을 실시해 디지털콘텐츠 개발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센터에는 장비 구매에만 60억원의 투자비가 들

어간 상태. 센터측은 앞으로도 사용자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되면서 HDTV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HD 관련 장비의 구입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투자될 부문은 대부분 HD와 관련된 부문이 많을 것이다. 어떤 미디어이던지 상관없이 완벽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이뤄내겠다는 게 이들의 포부다.

촬영부터 편집까지 원스톱으로

최근 들어 업계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DC제작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앞서도 밝혔듯이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센터에 갖춰진 장비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무료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대신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이 되지 않은 날을 골라 소정의 양식을 기재한 다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센터는 이를 검토한 뒤 이용 여부를 통보해준다. 일정이 다른 업체와 특별히 겹치지 않으면 거의 신청이 허가되는데 허가가 나면 관련 작업자와 함께 방문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센터에는 기술 자문 인력도 상주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장비에 대한 관리와 약간의 기술지도일 뿐 작업은 관련 회사에서 온 전문가가 해야 한다. 실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관련 포스트프로덕션에 대한 배려의 의미도 담겨 있다. 만약 정부 산하단체에서 실 작업까지 처리해주면 관련 회사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원활한 작업을 위한 지원활동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DC제작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스튜디오 대여와 편집 장비 제공. 센터의 역할은 가편집이나 종합편집, 스튜디오 관리 등 주요 기능별로 방을 마련해서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82평의 규모를 자랑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DC제작지원센터는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가편집실, 종합편집실, 미디어변환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 센터 내에는 작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의 기술지원을 도와줄 교육장과 촬영을 도와줄 분장실도 마련돼 있다. 이제 센터에 마련된 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들어가 보자.

어떻게 구성됐나

▶ 스튜디오

먼저 스튜디오는 간단한 무대설치가 가능하며, 이 곳에서 교 육물이나 토크쇼, 대담프로 제작 등 프로그램 촬영을 할 수 있 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TV프로그램의 녹화가 빈번하게 이뤄지 고 있다고 한다. 스튜디오의 장비는 스튜디오용 DV캠 EFP 카 메라 3대(소니 DXC 시리즈)와 ENG 촬영을 위한 VCR, 케이블 등의 각종 장치,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 는 프롬프트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이 곳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에 필요한 특수음향효과를 만들거나 성우의 더빙 녹 음도 가능하다.

▶ 부조정실

부조정실에서는 스튜디오와 관련된 제어는 물론이고 고화질 영상편집과 최종 음향합성, 다양한 미디어 수용 및 변환작업 등 을 처리한다. 이 곳에서는 비압축편집과 HD방송용 가편집이 가능한 아비드Xpress 엘리트가 구비돼 있다. 음향장비로는 오 디오 편집장비인 프로툴즈(Pro Tools)가 갖춰져 있다.

▶ 종합편집실

말그대로 종합편집을 지원하는 종편집실은 아비드 심포니 유니 버설 중심의 솔루션이 갖춰져 있다. 아비드 심포니는 원래의 영 상소스를 작업한 뒤 대부분의 영상 파일로 변환해주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솔루션으로 영상관련 작업자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이 곳에는 HD 관련 장비가 잘 구비돼 있어 HD 영상 작업시에는 가편집실로 이용되기도 한다. 종합편집실 에는 이밖에도 아비드 데이터 독 LVD, 야마하 O3D 디지털믹 서 등의 장비도 구비돼 있다.

▶ 가편집실

가편집실은 말그대로 가편집을 위한 신속한 편집작업, 간단 한 그래픽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다. 미디어 100 등 무선 형 편집 시스템과 그래픽 작업을 위한 맥킨토시 장비, 각종 엔 코딩 SW, 워크스테이션 등이 갖춰져 있다.

▶ 미디어변환실

미디어변환실은 모든 영상 및 오디오 매체를 실행하고 다른 방식으로 변환시켜주는 테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DC제작지 원센터가 가장 자랑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 부조정실이나 종합

편집실, 가편집실의 영상매체의 공유와 변환이 이뤄진다. 미 디어변환실에 설치된 장비들은 디지털 레코더, 아날로그 베타 캠 레코더, DV캠 레코더, DAT 레코더, 카세트 레코더, S-VHS 플레이어, VHS 듀플리케이터 등 거의 모든 형식의 비디 오 포맷이 총망라돼 있다.사용자는 한 번 이 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로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PAL, NTSC, 그리고 HD 형식의 결과물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다. 김민석 선임은 “이러한 지 원은 국내에서 DC제작지원센터가 유일하다”며 “기존에는 관련 변환장비를 찾아서 이리 저리 찾아다녔고 또 가격도 비쌌지만, 이 곳에서는 한 번에 모든 변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번에 다양한 포맷을 변환시킬 수 있어 제작시간 단축 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도 볼 수 있고 빠른 해외시장 진출도 가 능해 업체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고 부연했다.





아비드 유니티로 효율성 극대화

DC제작지원센터가 관련업체에게 희망적으로 다가가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센터에는 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도 있다.

아비드 유니티 솔루션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포스트 프로덕션업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센터가 갖춘 아비드 유니티는 모든 데이터를 공유시켜 서로간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는 일종의 공유서버 역할을 한다.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센터의 모든 작업은 각 장비에서 동시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는 가편, 종편, 미디어변환 등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DC제작지원센터 내에서는 테이프를 들고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DC제작지원센터의 또 다른 장점은 디지털콘텐츠의 HD 포맷 변환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HD영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곳은 별로 없다.

심지어 공중파 방송국도 이와 관련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는 못해 이 곳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센터의 이러한 자원은 관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센터는 가져온 소스에 대한 모든 후반처리작업을 한 자리에서 가능하게 하는 최상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함께 쓰기에는 규모가 작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 이를 위해 센터는 기존보다 3시간을 늘린 하루 12시간 운영체제로 센터를 개방하고 있다. 김민석 선임은 "센터 이용시간을 늘려 12시간 개방을 하고 있지만 가용시간분의 가동시간으로 나눠 본 실제 가동률은 최저가 97%, 최고 107%까지 나타났다"며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미 가용

시간을 넘어선 수치로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DC제작지원센터의 가동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인프라를 구축했듯이 디지털콘텐츠산업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디지털콘텐츠 발굴에 이바지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2001년 614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1,655억달러로 연평균 28%의 고성장이 예고된다. 이러한 시장에서 국내 시장규모는 2001년 말 18억달러로 추정되며, 2005년 69억달러로 38.9%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하지만 2001년 기준으로 세계시장 대비 국내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 IT인프라를 자랑하는 것에 비해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DC제작지원센터는 이러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센터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제작비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업체들의 진정한 도우미로서 자리매김하고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주역으로 서길 기대해본다. 